

발행일 2019. 8. 14.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발행인 박재욱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전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제 작 ㈜봄인터랙티브미디어

## 대전시 도시벽화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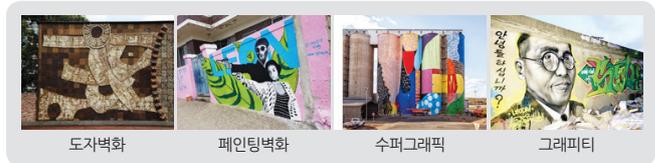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이형복

### I. 도시벽화의 동향

- 2007년 5월 17일 「경관법」과 2016년 2월 3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역환경개선 차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며 즐길 수 있고, 민·관 협력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벽화사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 짧은 시간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조성을 위한 수법의 일환이자 주민참여와 협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벽화제작을 행정에서 선호
  - 벽화는 건물 외벽, 거리의 담장, 소외지역, 도심 등 할 것 없이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 미술(예술)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수 있는 형태이며, 단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하게 됨
  - 벽화는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주민참여를 위한 동기부여가 쉬운 작업으로 추진조직에서 적극 수용함
- 최근에는 벽화가 지역관광과 도시이미지 제고를 넘어 범죄예방 효과와 측면을 기대하여 추진되는 사례도 다수 있음
- 그러나 벽화는 무분별한 사업추진, 관리소홀의 문제 등 다양한 지적과 함께 지역관광에서 대표적인 오버투어리즘 사례(이화마을 천사의 날개 등)로 거론되기도 함

구분	도자 벽화	페인팅 벽화	슈퍼그래픽	그래피티
단점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됨	쉽게 벗겨짐 빠른 부식	주위 환경과 부조화 우려	노출에 따라 분사 범위가 다름
재료	돌, 유리, 조각, 도판 등	물감 (페인트, 아크릴 등)	우레탄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	스프레이 등

- 최근 도시벽화의 특징은 도시 혹은 지역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공공미술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의 차별성과 일관성을 가진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있음. 일부 도시에서는 이를 도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기도 함



### II. 대전시 벽화현황

- 대전시 대표적 벽화사업으로는 무지개프로젝트로 추진된 대동 벽화마을, 마을미술 프로젝트 ‘중촌동에는 거리미술관이 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들 수 있음
- 2018년 현재 대전시의 총 벽화 수는 835개소로 동구 236개소, 중구 253개소, 서구 105개소, 유성구 60개소, 대덕구 181개소로 조사됨
  - 동구와 중구는 현재 노후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탓에,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히 제작되었다는 것을 벽화 분포로도 알 수 있음
- 전체 835개소 벽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민간영역에서 67.1%로 공공영역에 제작된 벽화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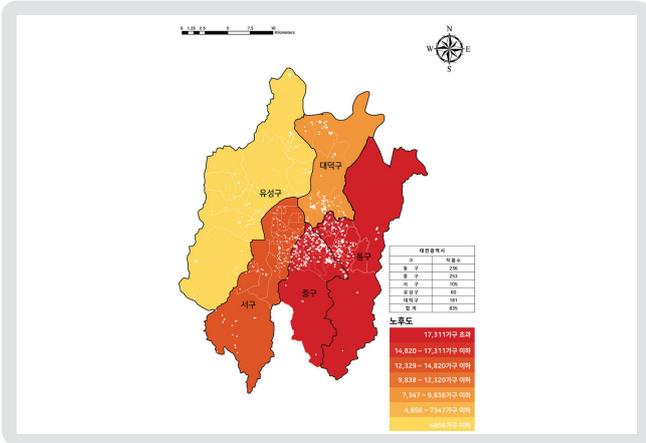
[표 1] 재료에 근거한 표현방식에 따른 벽화의 유형

구분	도자 벽화	페인팅 벽화	슈퍼그래픽	그래피티
정의	모자이크, 채색 벽타일, 도판형태일 등으로 건물의 내·외벽을 입체적으로 장식	수성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벽에 그린 그림	규모가 큰 옥외공간, 거리나 도시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	벽이나 그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굵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장점	내구성, 내열성 강함 반영구적 3차원적 입체감	가격이 저렴하고 수정이 쉬움	환경 장식성 광고 효과 고층건물 장식 효과	발색이 좋음 빠른 작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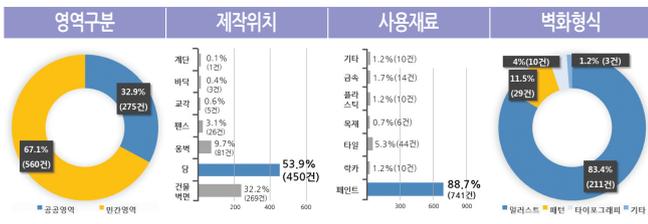
본고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연구 「지역환경개선 차원에서 도시벽화의 활용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벽화가 그려진 위치를 살펴보면 담 53.9%, 건물벽면 32.2%, 옹벽 9.7% 순으로 조사됨
- 벽화재료는 페인트 88.7%, 타일 5.3%, 금속 1.7% 등의 순이고, 벽화의 형식으로는 일러스트가 83.4%, 패턴 11.5%, 타이포그래피 4%, 기타 1.2% 순임
- 압도적인 페인트 사용은 경제성과의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페인트의 재료적 특성상 가성비가 높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임을 입증
- 노후된 건물벽면이나 옹벽에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

- 도시벽화는 공공미술 중에서 노출이 심한 탓에 ①사람들의 낙서로 인해 벽이 더러워지는 점, ②오래 보존하지 못하고 쉽게 없어질 수 있는 점, ③색채가 탈색 또는 변질되기 쉬운 점 등 벽화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위의 문제점과 함께 벽화제작에 있어서 소홀한 유지관리, 무분별한 위치선정, 제작비용에 따른 비전문가 선정, 사업의 단기적 완결에 따른 재료선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선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그림 1〉 대전시 3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 및 벽화위치



### III. 도시벽화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대전시 도시벽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도시벽화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의 일부로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시대적 예술성을 지녀야 함
- 둘째, 도시벽화는 지역의 정체성 또는 미래적인 창의성을 지향하는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에 있어서 위배되거나 상충되지 않아야 함
- 셋째, 대전의 도시벽화 디자인의 원칙으로 공공성, 맥락성, 지속성을 추구해야 함
- 위의 세가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도시벽화의 개선을 위하여 지켜야 할 8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음

- ① 도시벽화는 대상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도시경관 향상
- ② 벽화를 통해 쾌적하고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
- ③ 현란하고 과장된 디자인은 지양하고 안정된 가로환경 조성
- ④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저채도의 색채 사용 권장
- ⑤ 원형 훼손으로 인한 시각적 공해를 줄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나무, 타일 등 다양한 소재사용 권장
- ⑥ 스토리텔링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권장
- ⑦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고려
- ⑧ 어둡고 위험한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불거리 제공을 위해 조명설치 권장



〈그림 2〉 전민동 우수벽화 사례

- 도시벽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함. 첫째, 도시벽화 제작의 원칙 마련. 둘째, 주민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융합적인 방법을 모색. 셋째, 벽화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 넷째, 벽화마을 조성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방안 마련. 다섯째, 도시벽화사업 지원조례 제정과 가이드라인 보강이 필요함.



〈그림 3〉 현충원로 새마을 동네 우수벽화 사례

# 7월 대전 경제동향



## 종합평가

**대전지역**의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8년 7월 이후 상승하는 추세임. 한편,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11월 이후 연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냄. 2019년 2월 이후 소폭 상승하다 5월 들어 주춤하고 있으나, 향후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개별지표**에 있어서는 전월대비 대외거래가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반면, 소비가 회복되고, 생산과 건설경기가 활발한 모습임.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이 활발한 반면, 고용상황, 건설경기, 대외거래, 소비가 모두 부진함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투자 부진은 계속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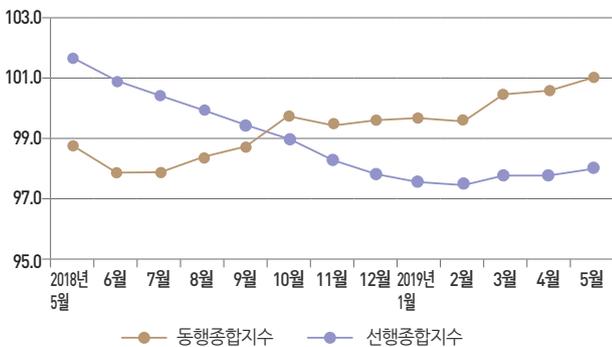
**대외적**으로는 미중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지난달에 비해서 개별 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 및 저소득층·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등 지역현안 및 국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

## 01 경기지수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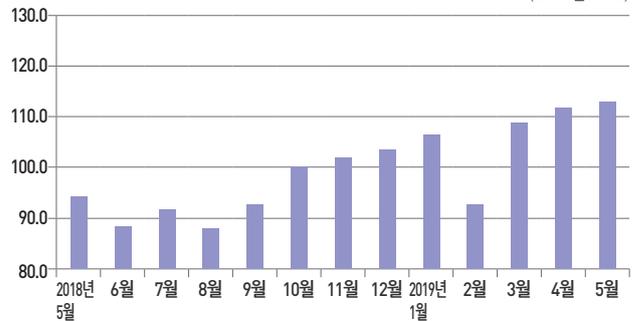
(2015년=100)



## 02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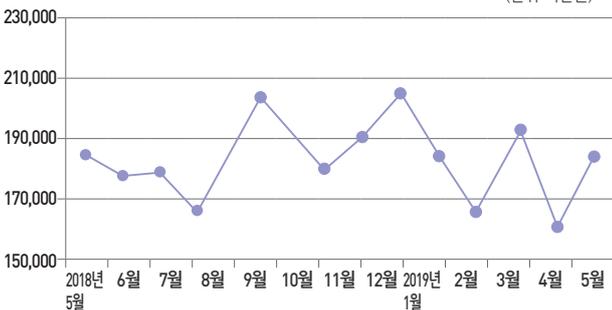
(2015년=100)



## 03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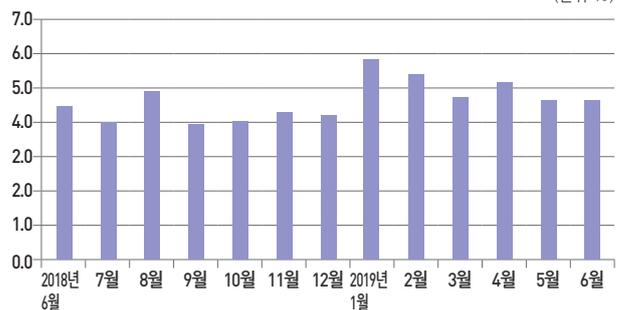
(단위:백만원)



## 04 고용 실업률



(단위:%)



# 7월 세종 경제동향



## 종합평가

**세종시**의 2019년 7월 세종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66.3으로 나타남. 2018년 2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체감경기지수는 6월 대폭 하락하였으나 다시 7월에 대폭 상승. 소상공인의 경기에 대한 전망지수는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생산측면**에서는 세종시 6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 전월 대비 0.2% 감소함.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 하였으며, 전월 대비 2.2% 감소함

**6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269건으로 전년 대비 19.0% 감소하였으며, 전월 대비 3.9% 감소함. 전월세 거래량은 1,360건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 전월 대비 3.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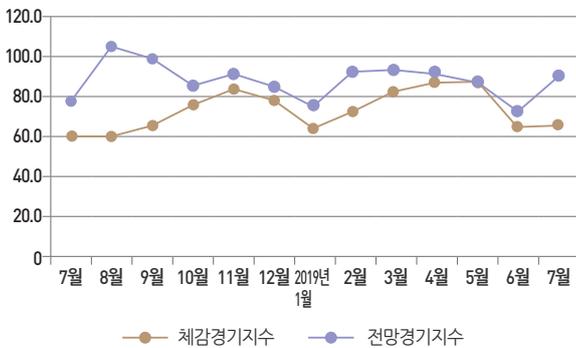
**6월 경제활동** 인구는 17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15만 4천명) 대비 13.0% 증가, 전월(17만 천명) 대비 1.8% 증가함. 취업자는 16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15만 명) 대비 12.7%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2% 증가함

**6월 전국의 실업률**은 4.0%이며, 세종시 실업률은 2.8%로 제주도 (1.9%), 전북(2.6%) 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세종시 6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 0.2%p 증가함

## 01 경기지수 소상공인 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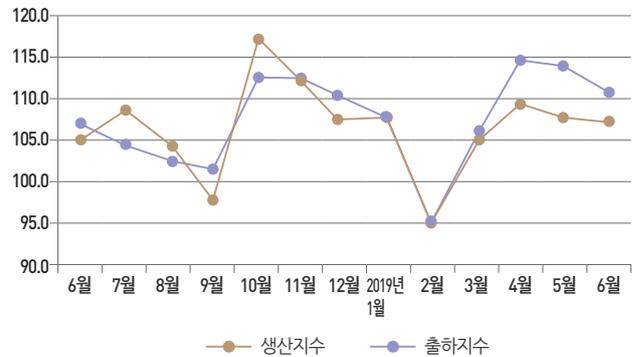
(100=전월 대비 보합)



## 02 생산 광공업 생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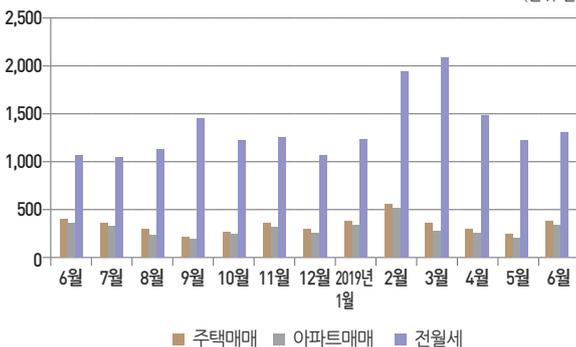
(2015년=100)



## 03 부동산 부동산 가격지수



(단위:건)



## 04 고용 실업률



(단위:%)

